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음 9월 11일) 제19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드론축구 운영규칙 체계화

▶ 전주시, 드론축구공·경기규정 개선 토론회 개최

협회 설립허가 취득 통한 전국 조직망 체계화에 전주시가 나서야
부족한 세부 규정 마련 시급·지부 활성화 미흡 보완 등도 제기

전주시가 드론축구를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쉽고 재미있는 레저스포츠로 만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초로 첨단 드론기술과 탄소소재, ICT기술을 융복합해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해 드론축구 중추도시로 불려왔다.

시는 29일 (사)캠틱종합기술원 지역 혁신관(1층)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지부장과 선수단장,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축구공 및 경기규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드론축구 지부육성 우수사례' 발표와 드론축구 규정집 변경안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드론축구 전반에 걸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많은 드론축구 행사와 경기를 치러오면서 경험했던 드론축구 경기 룰 개정과 드론축구공 개선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 허가 취득을 통한 전국 조직망의 체계화에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드론축구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으로, 시는 앞으로 드론축구의 저변 확대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에 설립 허가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큰 틀의 규정만 마련된 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부족한 점 또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손꼽혔다. 일례로, 특정 팀에 대항하기 위해 복수의 다른 팀들이 연합팀을 결성해 참가하는 문제나 고성능 개조 드론축구공을 이용해 규격 공인구를 사용하는 다른 팀을 압도하는 등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드론축구장 설치 비용과 드론축구공 구입비가 아직은 비싸고, 지부 활성화가 미흡한 점 등도 드론축구 저변확대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 및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의 재미와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배터리 지속시간을 더 늘려 충분한 경기시간 확보 △득점 방식 개선 △경기장 및 골대 규격 정형화 등 경기 방식과 축구공 자체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드론축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작업에 속도를 더하는 한편, 오는 11월 25일 전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2017 Korea 드론축구 페스티벌'(협회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의 성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동시에, 문체부 허가를 앞둔 대한드론축구협회 사단법인 설립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동아시아 드론축구대회 및 2020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드론축구 월드컵대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출시 1돌을 맞는 드론축구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성과를 냈으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행착오와 수많은 지적들을 통해 드론축구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드론축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축구는 드론기체를 탄소보호소재로 감싸 만든 축구공을 각종 ICT기술을 응용해 직경 80mm 가량의 골대에 집어넣으며 경기하는 방식으로, 시는 드론축구 출시 이후 드론축구 무료 상설 체험장 운영, 드론축구 디지털 특허출원,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등 괄목할 성과를 통해 미래형 첨단 레저스포츠로서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 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

지난 27일 전주 휴비스 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제27회 노사발전 한마음 대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특정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정 촉구

▶ 도의회 최명철 의원, 도정질문서

“중사자 여비 등에 지출” 지적
위탁 해지 등 법적 조치 취해야
AI 발생 예방대책 마련도 촉구



위반하면 법 제 7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형사처벌의 대상되며 이 시설들의 위탁

전북도의회 최명철 의원(전주4·국민의당·사진)이 27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아동 생계비 전용에 대한 법적 조치와 구제역·AI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은 다수의 시설들이 입소자 생계비에서 아파트 임대료와 중사자 여비, 심지어 한국이동그룹협회비를 지출하는 등 아동의 '급여된 금액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생계비의 목적의 사용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제 17조제11호 '급여된 금액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이를

해지 및 원장 교체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일부 시설들에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고, 국민기초생활법 제33조제5항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하여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명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북도와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72억원으로 554% 증가했고, 2017년 9월 현재까지 약 77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AI로 인한 예산은 2015년 약 173억원, 2016년 414억 원으로 239% 증가했으며, 2017년 9월 현재까지 546억 원의 비용이 투입,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명철 의원은 가족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족사육 방식의 문제인지, 초동방역의 실패인지, 발생 후 소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제역 백신에 효과가 낮은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전염병으로 살처분 된 가족의 보다 안전한 처리방법,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한 처리 방법은 없는지,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최고의 디자이너 옥석가리기’ | 한지섬유패션 경진대회 성료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지난 28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한지섬유패션 경진대회 패션쇼'를 디자이너, 기업인, 유관기관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제6회 섬유패션디자이너경진대회는 익산국회축재장 특설무대에서 섬유기업, 대학, 디자이너, 지역구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시민 등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패션쇼에

는 그간 5차례에 걸친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외 패션디자이너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 등 패션디자이너를 전공하는 우수한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경진대회 주요 컨셉은 '유스텔지어(Youth+Nostalgia)'로서 젊음과 향수가 융합된 심미성, 실용성, 독창성 등 대중 친화적인 패션 제품을 선보였다.

경진대회 출전은 ECO융합섬유연구에 1차 스타일화로 신청한 94점 중에서 실물 제작의상으로 접수된 57점에 대해 패션쇼와 최종 인터뷰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 시상했다.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개회식 축사에서 "전라북도가 한국의 한지섬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 디자이너 전문가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사랑의 열매'가 '정권의 열매' ? 정치편향기금 배분 논란

4면 - '상복 터진' 전주시, 정책 우수성 인정받아

사랑스러운 도시 품격의 전주